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8호 [무게 제25291호] 주체105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류경안과종합 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방위원회 실제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력량투입과 자재보장대책도 물론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펼쳐나신 건설자들과 일군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눈치로는 물론 안경제적과 교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문수지구에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귀중한 눈을 보호해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당에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지난 기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운



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정책해실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류경안과종합병원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민병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건건 기념일인 10월 10일전으로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명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지도반

8건설국에 맡기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소문없이 공사를 책임적으로 해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눈치로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제적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써의 특성이 살아나게 내외부시공을 잘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실제의 요구대로 안과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외부장식을

특색있게 하며 건축물의 모든 요소요소에 대한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 안경상점을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면서도 환자치료와 봉사활동에 유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물의 미학성과 편리성, 실용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들사이에 협동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요구성들을 높이며 건설감독사업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병원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각종 비품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안경상점에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경을 제작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와 성별, 연령별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안경들을 만들어 봉사해줄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들도 그른이 갖추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세우면 우리가 최근 몇년

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건건 기념일인 10월 10일전으로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명세를 다지였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은 증산의 확고한 담보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치나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의 높아나는 석탄수출을 원천히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현실적방도를 세워가고있는 요즘 성의 어느 일군을 만나보아도 하나로 합쳐지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막강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석탄증산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에서 10년간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높아나는 석탄수출을 원천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정부원들속에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특히 보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조항별로 차차구구 새겨며 전수할수록 경제하는 동지께서 이걸 실현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찾아나가도록 학습도움을 지시하시고 있다.

이 나날 성의 각 부서들에서 지역자장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석탄증산을 높이기 위한 헌정 및 전략적책이 구체화되고 그 집행대책이 하나하나 마련되고있다.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치나섰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의 높아나는 석탄수출을 원천히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현실적방도를 세워가고있는 요즘 성의 어느 일군을 만나보아도 하나로 합쳐지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막강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석탄증산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에서 10년간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높아나는 석탄수출을 원천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정부원들속에서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특히 보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조항별로 차차구구 새겨며 전수할수록 경제하는 동지께서 이걸 실현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찾아나가도록 학습도움을 지시하시고 있다.

이 나날 성의 각 부서들에서 지역자장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석탄증산을 높이기 위한 헌정 및 전략적책이 구체화되고 그 집행대책이 하나하나 마련되고있다.

어거머 탄광일군들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결과 탄광의 책임 일군들부터 자강적책임주의를 높이 들고 늘높은 채탄비율을 자체로 만들어내면서 수평분층채탄법을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부대중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성에서는 더 많은 탄자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각지 탄광기계공장에 대한 성적인 조전보장사업을 따라세우면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70일전투의 나날 성적으로 최근년간에 처음 보는 탄자가동설적이 기록되면서 5월 22

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그때보다 큰 탄대나 더 많은 탄자들이 가동하여 운반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각지 탄광들에서 선진기술을 안비하여 질풍을 석탄을 소비지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2, 8직동등년탄광에 풍기부합식선반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봉동탄광, 명대탄광에 새로운 선반식선반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단위들에 선반식선반기 안비되게 되면 성에서 올해말까지 계획하였던 수평분층채탄법에

대한 새로운 선반식선반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앞당겨 계속되고 있다.

70일전투기간 평안남도지구 탄광들을 망라하는 명성총수선에 의한 성적인 생산지위체계를 완성한 성일군들은 그 경험을 살려 지금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북부지구 탄광들에 대한 생산지위의 정보화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석탄공업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드높은 자각과 혁명적실선에 의하여 탄광들의 기계화비중을 한계안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병현



영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오늘 건설부에서 나오는 혁신의 불바람은 과학기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런 면에서 영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이 매우 시사적이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들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몇몇 전이 단위의 당, 행정책임일군으로 배치되어있는 김승우, 손광철 등 두명은 생각이 깊었다.

당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이 단위의 실적이 성취를 얻어지고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없던 것이 없는 반박시풍, 그로 하여 소비되는 노력과 자제도 권하였지만 단 더우기 건설의 질이 떨어지는것이 문제였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자존심을 온갖 것에 굴복하고 영예의 요구를 무시하고 속도일면에만 치우치면서 건설을 넘길수 없는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기 단위의

현 실태를 뼈저리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수 없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단념을 보장하지는 구호로 단순한 선포문으로 아니라 깨끗한 맘씨와 실천의 구호로 되게 하자. 그러자면 대중의 정신향을 분방시켜 사업소에 과학기술중시의 거름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우선 부족되는 기술인재를 보강하기 위해 능력이있는 기술인재들을 찾아내기도 하였으며, 찾지 못한 인재들을 대량에 양성하는 인재육성대 당국에 받아들여서 강력한 기술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노력은 즉시 나타났으며, 앞선 공법들이 적당 도입되고 건설의 속도와 질이 높아졌을뿐 아니라 건설자양성에서 과학기술에 의지하려는 자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곳 일군들이 증명적으로 노린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본론한 기술력량을 꾸려 일련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두명의 인재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적기회를 마련할수 없다. 전민과학기술인재들, 바로 여기에 비약의 도약대가 있었다는것이 이들의 확고한 결심이었다.

일군들은 기술력량이 강화되는 데 맞게 사업소의 모든 건설자들의 기술수준을 따라세우기 위한 조직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배 작업조를 4명으로 조직하고 여기에 기술능력이 높은 사반을 한명의 소속시켜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일군

자재의 기술개발력량을 꾸린 보람

길주 합판 공장 에서

길주합판공장에서 총칭의 70일전투기간 자재의 힘과 기술로 적적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랑한 성과를 놓고 공장일군들은 자재의 기술개발력량을 의거하는데 비중이 있다고 말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적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노력적성품을 마련하는것이, 이것이 공장이 내세운 70일전투의 중요목표였다.

이를 위한 작전을 펼치면서 공장책임일군들은 자재의 기술력량을 철저히 의거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때때로 공장에서는 비록 오래전이기도 하지만 자재로 적적생산품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강조하는 자강적책임주의를 실생활

로 실현모두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재의 기술력량을 개발해야 한다는것이 책임일군들의 주장이었다.

공장에서는 우선 기술개발력량투쟁에 힘을 넣었다. 공장 기술공들 대부분을 비롯하여 오랜 기술자들은 적적생산선반을 다루어온 경험은 적적생산과 관련한 일정한 기술을 소유하고있었다. 한편 김옥순동무를 비롯한 기술공들은 적적생산선반을 다루어온 경험은 물론이요, 여기에 집결전투를 비롯한 새 세대 기술자들을 포함시키면 서로의 상호적지혜와 힘이 합쳐져 능히 빠른 기일안에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책임일군들의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공장일군들은 강력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공장일군들은 강력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배합비를 얻는것이였다. 책임일군들이 직접 뛰어들어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세출해냈다. 실적이 뒤따랐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지적자장의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고 원료자재도 우선 동무를 비롯하여 오랜 기술자들은 적적생산선반을 다루어온 경험은 물론이요, 여기에 집결전투를 비롯한 새 세대 기술자들을 포함시키면 서로의 상호적지혜와 힘이 합쳐져 능히 빠른 기일안에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책임일군들의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공장일군들은 강력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공장일군들은 강력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연구조전성에서 노린 기본목적이었다.

격동하는 시대는 이런 개척자들을 부른다

평성자동차 기구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

하여 현실에 도입하였다.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판사를 모으고 어디서나 덕을 볼수 있는 현대적인 총력발전기를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노력적성품으로 제작하려는 파장은 공장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와 살로 새겨진 나날이었다.

선택 뒤에는 검증이 있다

지난해 7월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도인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0KW총력발전기 제작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협의회에 참가하고 들어오는 길에 기술발전과 관련된 동무들은 지체없이 그 총력발전기 공장에서 만들어보자는 의향을 내비쳤다.

지체인 응징적투쟁의 생각은 한순간 착각해졌다. 지난 시기 300W총력발전기 제작과정을 통하여 10KW총력발전기를 만들겠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총력발전기의 남게제작만 보아도 형과 재질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그 길이 자연에너지까지 적극 활용에 대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해 누군가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자각이 지체없이 뇌리를 쳤다.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기까지

한 소식은 공장주변까지 전해졌다.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판사를 모으고 어디서나 덕을 볼수 있는 현대적인 총력발전기를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노력적성품으로 제작하려는 파장은 공장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뼈와 살로 새겨진 나날이었다.

선택 뒤에는 검증이 있다

지난해 7월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도인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10KW총력발전기 제작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협의회에 참가하고 들어오는 길에 기술발전과 관련된 동무들은 지체없이 그 총력발전기 공장에서 만들어보자는 의향을 내비쳤다.

지체인 응징적투쟁의 생각은 한순간 착각해졌다. 지난 시기 300W총력발전기 제작과정을 통하여 10KW총력발전기를 만들겠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총력발전기의 남게제작만 보아도 형과 재질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그 길이 자연에너지까지 적극 활용에 대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해 누군가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자각이 지체없이 뇌리를 쳤다.

우리 식의 창조에 지름길이 있다

총력발전기는 남게와 함께 발전기본체와 조종장치가 구성되었다. 이 3대요소로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히 담보되어야 총력발전기가 원천히 가동할수 있다.

미지의 세계를 뚫으며 남게제작과 관련한 경험을 풍부한 기술자들은 일정한 본체와 조종장제작전투에 신심있게 달려들었다.

능력이 작은 총력발전기의 제작과정을 철저히 발전기본체가 제작되었다. 시험해보니 풍속이 맞게 발전기가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했다. 바람이 세 조건에서만 가동할수 있는 발전기본체를 놓고 이들의 생각은 깊었다.

오늘의 기술은, 두뇌전은 우리 식의 창조에 지름길이 있다

리 식의 창조이다. 맹목적으로 기술문헌이나 기존의 방식에만 따르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발전기의 모든 요소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구성하자.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반장 최영철동무가 한가지 실마리를 찾아냈다. 전선제작선반을 기술문헌에 있는 발전기본체가 아니라 대당하게 새 방법으로 시도해보자는 것이였다. 그 방안은 여러 기술자, 기술공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보완한 결과 가동성 발전기본체의 전기가 생성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환성을 터뜨렸다.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행위전의 불결속에 완성된 총력발전기는 공장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만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뜨거운 애국의 결정체였다.

격동하는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이런 개척자들을 부른다.

본사기자 리영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도이힐란드반제연단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민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8일 도이힐란드 반제연단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불분 불류의 로고를 바치신

독재정권은 또 한 자의 순환리용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질방식이다.

이것은 생산방식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생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자원화할것을 요구하며 제종의 폐기후에도 재이용하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독재정권에서는 생산과정은 물론 제품이 실현된 다음에도 자원을 무한히 순환리용하여 그 리용수준을 최대한 높일수 있다.

전 해영

모잠비끄해방전선당대표단

환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민경대역점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당장전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평도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존엄높고 강위적인 불매의 당으로 강부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절제없이 대대 다함없는 호모심을 굽지 못해하였다.

이처럼 대표단은 국제친선친람관, 과학기술친담 등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유엔에 공식 등록되었다

주제105(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우주공간으로 쓰이울된 물체를 등록하고 관련한 협약》제약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결국 유엔우주사무소가 《광명성-4》호의 등록과 관련한 유엔공식문건(ST/SGBR/E/768)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사이트에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교보브라이트에 각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해당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우리의 위성등록사업이 완결되었다.

라 발사된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주제조건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며 자기 궤도를 따라 기세차게 돌고있다.

마 신 아 학 생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 쟁취

지난 시기 여러 국제콩쿨무대에서 뛰어난 음악적재능을 발휘한 우리 나라의 마신아학생이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스키의 샤르프니아에서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폴스카, 도이힐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20개 나라 50여명의 우수한 청소년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나이가 따라 3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머니타의 은성속을 음악신동으로 자라나기 위해 헌신적정열을 다수한 김정현동지께서는 마신아학생이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스키의 샤르프니아에서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폴스카, 도이힐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 20개 나라 50여명의 우수한 청소년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나이가 따라 3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머니타의 은성속을 음악신동으로 자라나기 위해 헌신적정열을 다수한 김정현동지께서는 마신아학생이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몽골대사관 성원들

정방형동농장에서 친선로동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우연간 초고계별 주요 몽골공민원내사관과 대사관성원들이 28일 사리원시 조전몽골친선정방형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농장에 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한 세설을 들은 다음 연혁소개설을 들어 보았다.

그들은 뜻깊은 울며 알곡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당

도이힐란드반제연단대표단 도착

선출양동선 1미하연 코트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1미하연 코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힐란드반제연단대표단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오병우 아이제조선중고급학교 교장과 박광복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도이힐란드반제연단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마신아학생이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오병우 아이제조선중고급학교 교장과 박광복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